

대행 스님

여러분! 한 철 살기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나무라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다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줌으로써 집을 안식처로 알고 들어오게끔 한다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찌 안 들어오며 또 아내도 나갔다가도 부지런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서로가 위하니까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니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란 말을 했죠. 그 한마디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붙어 돌아갑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은 둘이 아닌 까닭이요 '나'가 있다는 까닭이요, 나를 찾으면 나 자체도 없이 공했다는 까닭이요, 또는 둘이 아니게 이 세상이 공심하고 공용하고 공체로서 공식까지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음은 대(對)가 없는 것이 한마음이요, 그 한마음은 부처라는 이름도 가질 수 있고 그 한마음은 결국은 길이죠. 그러니 우리 자체가 무엇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부터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가짐가짐, 남을 탓하기 이전에.

그리고 여기 뉴욕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가톨릭교는 가톨릭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렇게 쪼개져서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지 않아 천에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쪼개고 쪼개도 항아리 속에서, 즉 말하자면 구더기가 서로서로 여기 요 자리는 내 자리 요 자리는 네 자리 하고 찾는 거와 같으니 얼마나 이게 쓸쓸하고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아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지구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레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들이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데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거를 속의 중생들이, 그 친구들이 다 압니까? 모르면서 이 부분 저 부분을 맡아 가지고, 공장을 맡아 가지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싸우죠. 그런데 지배인이 그 마음을, 지금 공부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있다면 파워가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포를 죽이지도 않고요. 세포를 죽이고 파워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몸뚱이를 못 쓰게 되고 어떤 한쪽이 굳어지고 모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천지가 한데 합쳐져야 인이 나오고 음과 양이 한데 합쳐져야 인간 하나가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우리 세상 이 천지가 다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그래서 '나로부터 알아라.' 나의 국토부터 안다면 이 세계 국토를 알고 세계 국토를 안다면 내 국토도 지킬 수 있고 또 지구 국토도 지킬 수 있다. 역사도 영원히 잘 가져올 수도 간직할 수도 있고, 그러는 반면에 집을 지키려면 바로 우주를 우리는 감지해야 된다.

그럼 나툰다는 법은 무엇인가? 태양도 월세계도 다 나 아님이 없다. 왜 그런가? 내가 주장자를 줄 수도 있고 그 주장자를 내가 가져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조절입니다.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즉 말하자면 금방 화해서 약사도 될 수 있고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보현도 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문수도 될 수 있고, 생각났다 하면 문수요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니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어저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되풀이 한번 해 볼까요? 부처님 마음으로서 사바세계에 관세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동방에 아촉으로 정해 놓으시고 지천국에 지장을 정해 놓으시고, 서천국에는 바로 아미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명이 깨쳐도 만 명 다 그 부처님의 한마음의 한자리입니다. 이 뜻을 아신다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할 것도 없고 그대로 한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거는 따지고 들고 그러니 이 중천세계에서 체로 걸러서 바로 상세계로, 마음세계로 오르느냐 하천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교차로, 바로 체에다 거르는 것이 중세계입니다. 그러니 이 중세계에서 모두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싸 짊어질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지고 나온 것도 지금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뭐하러 그렇게 짊어질 겁니까? 전설의 고향을 잘들 보시지만 그건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지 과거에 산 거는 현실이요 현실에 사는 건 미래인 것입니다. 사람이 즉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포천 어디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큰 구렁이가 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닦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신문에 나고 모두 야단들이 났었거든요. 한 20년 전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마 20년 더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군인들이 사단 사단이 그냥 무지하게 거기 주둔해 가지고 천막을 치려고 전부 그 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네더러 꿈에 "내가 지금 도를 닦고 있는데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내가 다 해. 끝나. 그러니까 사흘만 말미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 달라." 하고 노인더러 꿈에 그렇게 부탁을, 애원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 몸을 딴 데로 옮길 테니까 사흘만 말미를 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가서 얘기하니까 군인들은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 이튿날 또 꿈을 꿔서 또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줘. 그 이튿날, 사흘 되던 날은 아주 간곡히 얘기해서 가서 대장더러 얘기를 하니까 군인이 그런 미신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곤 안 들었다는 거지. 그랬는데 웬걸 그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전부 자는데 밤에 그냥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비가 오는 줄도 모르게 와 가지곤 그냥 산이 뭉그러져서 전부 일망타진됐어요, 그냥. 근데 그 애원하고 벌벌 떨고 그냥 빌고 빌고 빈 그 노인네 논만 그대로 요렇게 산이 무너져 가지고 막아 주고, 그 집만 막아 줬지, 딴 집들은 다 그냥,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즉 말하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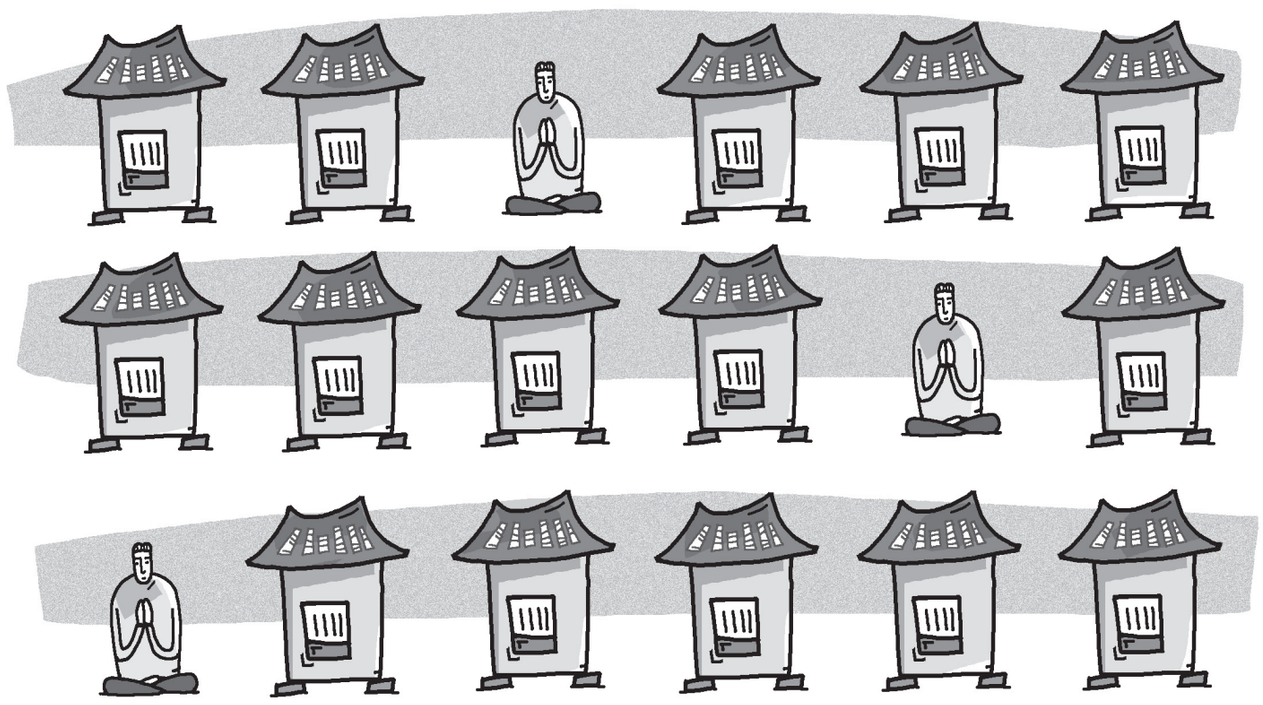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